

2006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정답

1	㉓	2	㉒	3	㉔	4	㉕	5	㉖
6	㉑	7	㉑	8	㉑	9	㉓	10	㉔
11	㉒	12	㉑	13	㉒	14	㉕	15	㉓
16	㉓	17	㉓	18	㉕	19	㉕	20	㉑
21	㉒	22	㉕	23	㉒	24	㉓	25	㉑
26	㉔	27	㉕	28	㉔	29	㉑	30	㉓
31	㉑	32	㉓	33	㉕	34	㉓	35	㉔
36	㉑	37	㉓	38	㉑	39	㉕	40	㉔
41	㉒	42	㉔	43	㉓	44	㉓	45	㉒
46	㉒	47	㉕	48	㉔	49	㉒	50	㉒
51	㉔	52	㉑	53	㉕	54	㉔	55	㉕
56	㉑	57	㉔	58	㉒	59	㉔	60	㉔

해설

1. [출제의도] 화자의 설명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원고지의 문장 부호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세요. 여러분이 원고지에 글을 쓸 때 자주 쓰는 문장 부호는 <표>에 있는 것과 같이 온점, 반점, 물음표, 느낌표, 큰따옴표, 작은따옴표 정도인데요, 예로 제시한 원고지에는 ㉑에서 ㉔까지 여섯 군데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들 중에 문장 부호를 잘못 사용한 경우는 없는지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문장 부호는 한 글자로 취급하므로, 한 칸에 하나씩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두 원칙에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초 씬))) 문장 부호에 따라서는 이어지는 칸을 비우기도 하고 비우지 않기도 합니다. 온점과 반점을 찍은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글자를 쓰고요, (((1초 씬))) 물음표와 느낌표를 쓴 다음에는 한 칸을 띄우고 쓰도록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2초 씬))) 그리고 원칙적으로 문장 부호는 한 글자로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문장 부호가 잇달아 나올 때에는 각각 다른 칸에 쓰도록 해야겠죠. 그렇지만 큰따옴표나 작은따옴표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문이 종결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용문이 온점으로 끝날 때는 온점과 닫는 따옴표를 한 칸에 쓰고요, (((1초 씬))) 느낌표나 물음표로 끝날 때는 따옴표를 다음 칸에 씁니다. (((1초 씬))) 또, 온점과 반점, 물음표와 느낌표는 첫 칸에 쓰지 않습니다. 문장의 마지막 글자가 줄의 마지막 칸에서 끝난 경우일 때 다음 줄 첫 칸에 이런 부호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마지막 칸에 글자와 함께 문장 부호를 쓰거나 칸 밖에 붙여 쓰면 됩니다.

온점 뒤에서는 한 칸 띄지 않는다고 했고, 반점 뒤에도 한 칸 띄지 않는다고 했으며, 인용문 끝에서 온점과 따옴표는 한 칸에 둘을 쓴다고 했다.

2. [출제의도] 대화 상황에 적절한 의미의 속담을 묻는 문제이다.

딸 : 엄마, 그 동안 별일 없었죠?
어머니 : 그럼, 무슨 일 있었겠니.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났니?
딸 : 다정이 옷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잠깐 온 거죠. 그건 그렇고, 이 옷 좀 보세요. 백화점에서 바겐세일을 한다고 해서 갔다가 눈에 띄이기에 사 왔어요.
어머니 : 예쁘구나.
딸 : 정말 괜찮죠? 윗도리는 10만 원 컸고요, 바지는 8만원 컸어요.
어머니 : 너무 비싼 거 아니니?

딸 : 세일이니까 그렇지 평소에는 40만 원은 넘게 줘야 해요.
어머니 : 그래도 너무 비싸. 다정이가 겨우 일곱 살인데, 입으면 얼마나 입겠니? 내년이면 또 새 옷을 사줘야 하잖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게 아이들인데. 겨우 한 철 입자고 옷 한 벌에 18만 원씩이나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니?
딸 : 만 원, 이만 원짜리 옷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옷들은 어쩐지 성에 차지 않아서요.
어머니 : 그건 애 엄마인 네 욕심이야.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럴수록 자제해야지. 옷을 비싼 걸 사면 신발이나 다른 장신구도 옷에 맞춰주고 싶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옷을 사 주고 싶고. 점점 더 비싼 것, 더 좋은 것을 해주려고 할 거 아니냐?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다.
딸 : 자기 딸 예쁜 옷 사주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러세요.
어머니 : 그렇지 않단다. 옛말에도 있잖니.

어머니는 딸이 손녀에게 품고 있는 끝없는 욕심을 경계시키고 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속담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경계의 의미가 있다.

3. [출제의도] 우화에 담긴 교훈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여) : 오늘은 우화 하나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깊은 물고기와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한 물고기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지 생각하면서 들어 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해설(남) : 옛날 어느 나라에 이름 없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성문 아래쪽에는 연못이 있었고, 연못 속에는 고기 떼가 한가롭게 노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고기 1 : 애들아 큰일 났어! 성문에 불이 났어! 화를 입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효과음 : 물고기들 웅성거리는 소리
물고기 2 : 성문에 불이 났으면 난 거지 웬 소란이람? 겁쟁이 같으니!
물고기 3 : 맞아 맞아.
물고기 1 : 여기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모두 잡히다고.
물고기 2 :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애들아, 우리 놀던 거 계속 하자.
물고기들 : 그래 그래.

해설(남) : 불난 소식을 알린 물고기는 걱정하는 표정으로 친구 물고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고기 1 : (혼잣말로) 이러면 큰일 나는데. 어찌지? 할 수 없다. 나라도 도망가지.
해설(남) : 이 물고기는 하는 수 없이 혼자 연못을 벗어나 도랑으로 도망쳤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물통을 들고 연못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못에서 성문까지 한 줄로 길게 늘어서더니 연못의 물을 퍼서 성문으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못의 물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2 : 애들아, 큰일 났다. 물이 줄고 있어.
물고기 3 : 사람들이 물을 마구 퍼내고 있어. 도랑으로 이어지는 물길은 벌써 말라 버렸네. 어찌면 좋아.
해설(남) : 어느덧 성문의 불이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연못의 물은 모두 마르고, 물고기들은 모두 흙탕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흙탕 속으로 들어와 너도나도 앞 다투어 물고기를 주워갔습니다.

우화에는 화제와 연못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한 물고기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은 물고기가 있다. 그

러므로 이 우화는 사건들 사이에는 관계가 있다는 점과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는 신중하고 사려 깊은 생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우화는 친구 사이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와 이로 인한 피해를 다루고 있지 않다.

4. [출제의도] 교양 강의 내용을 그림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비교적 생소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 보십시오. 공을 사용하는 운동에 여러 종류가 있죠. 테니스, 배구, 축구, 럭비 등, 생각해 보니 이외에도 더 있군요. 그리고 이런 운동에 사용하는 공들은 그 크기나 모양, 무게, 재질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모두 무시하고 단순히 공이라고 부릅니다.

자유롭게 길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고, 부피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찰흙 같은 부드러운 물질로 만든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모가 난 부분을 부드럽게 흰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을 것이고, 칠판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변형한다면, 삼각형 외에도 모든 다각형들을 원과 같은 도형으로 바꿀 수 있죠.

이번에는 입체도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죠. 가령 여러분의 손에 찰흙 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 덩어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꺾 누르면 움푹 파인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파인 부분을 점차 넓히고 옆면을 다듬으면 밥그릇이나 일회용 종이컵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과정을 거쳐서 변형하면 다시 처음의 덩어리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이어진 부분을 끊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붙여서 한 덩어리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넛 같은 것을 눌러서 한 덩어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멍이 있는 고리형 물체를 뭉치는 것은 떨어진 것을 붙이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칠판을 봅시다. 이런 방식으로 손잡이가 하나 달린 커피잔을 변형해 보면 도넛과 같은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커피잔의 바닥과 옆면이 만나는 곳을 다듬어 압착시키면 결국 한 덩어리로 합쳐지고, 손잡이에서 손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한 도넛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해 볼까요? 칠판 아래에는 다섯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커피잔과 같은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일련은 화학 실험에서 쓰는 삼각 플라스크고요, 이번은 접시이고, 삼번은 가마솥의 솥뚜껑, 사번은 사과, 오번은 줄이 없는 테니스 라켓입니다.

줄이 없는 테니스 라켓은 손잡이 부분을 압착하여 다듬으면 구멍이 하나 있는 도넛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다. 나머지는 구멍이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설명 중에 언급했던 찰흙 덩어리와 같은 형태에 속한다.

5. [출제의도] 대담에서 논의되는 화제를 파악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 : 우리 국민의 혈중 수은 농도가 일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환경부의 보고서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한국대학교 생명과학과 이정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겠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국민의 혈중 수은 농도는 1리터에 4.34마이크로그램으로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5배에서 7배 정도나 높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보도된 오염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수치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요.

남 : 다행히 한국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이 제시하는 권고 기준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수은 오염에 대한 경각심

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 혈중 수은 농도에 대한 기준은 물론 대기 중 수은 농도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여 : 그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니 큰일이군요. 그러면 수은은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치나요?

남 : 수은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되지 않고 축적이 되어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수은은 조금만 들이키더라도 폐렴을 유발하고, 신장과 중추신경계에 나쁜 영향을 주며, 오랫동안 수은에 노출되면 언어와 인식 작용에 장애 현상까지 초래하고 생식 기관에도 독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여 : 수은 오염이 인체에 매우 심각한 해를 끼치는군요. 그런데 수은은 어떤 과정을 거쳐 체내에 축적이 되나요?

남 : 우선 일반적으로 수은은 생태계의 먹이 연쇄 과정을 거쳐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큼니다. 특히 어패류를 많이 먹는 식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체내 축적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 대기 중에 떠도는 수은도 체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경우 석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 중 수은 배출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대기에 포함된 수은이 황사처럼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와 일본으로 날아드는데, 이때 우리나라 상공의 수은 농도는 정상시의 농도보다 5배 정도나 높다는 측정 결과도 발표되었던 적이 있지요. 이렇게 날아든 수은은 우리의 농·수·축산물에 쌓여 체내로 들어와 축적될 가능성이 큼니다.

남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혈중 수은 농도가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였고(③), 수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①), 수은이 체내에 축적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였다(②).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상공의 수은 농도에 대해 언급하였지만(④), 수은 오염과 관련하여 경제적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6.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자는 첫 발언에서 보도 자료를 인용하여 화제를 소개하고, 둘째 발언부터는 남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고, 이어서 다음 화제를 언급하여 대담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7. [출제의도] 도표에서 연상되는 내용을 활용하여 쓸 수 있는 글감을 고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도표는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한 ㉠의 그래프가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한 ㉡의 그래프보다 생산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파악하여 이어지는 내용을 구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의 거주지에 따른 통학 수단과의 관계를 연구한 통계 내용은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9. [출제의도] 글쓰기 단계에서 자료를 해석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③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믿을 만한 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매출액이 높은 업체가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

10. [출제의도] 글의 의도에 맞게 개요를 적절하게 수정하고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II-2-가’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11. [출제의도] 맞춤법 규정을 참고하여 올바른 표기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의 ‘가까워지고’의 원형 ‘가깝다’는 ‘ㅂ’불규칙에 해

당하지만 모음이 ‘ㅛ’인 단음절 어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워지고’라고 쓰는 것이 옳다.

12.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는 조건 1, ③은 조건 1, 3, ④는 조건 2, ⑤는 조건 1, 2에 어긋난다.

13. [출제의도] 글을 평가 항목에 따라 고쳐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② ㉢원인은 ㉢앞에 ‘인기 지속~불편함 때문에’라고 제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④ ㉢은 보어성분이 생략되어 어색하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벗겨지다’는 ‘땀이거나 썩어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해 떼어지거나 떨어지다’의 뜻이다. ‘벗어지다’는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의 뜻이다.

[15~19] [현대시] (가) 정지용, ‘비’ (나) 박재삼, ‘매미 울음’ (다) 성기조, ‘고향으로 가는 길’

15.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비가 내리는 광경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 화자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다. (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했으며, (다)는 고향의 다양한 정경을 그려내면서 부푼 마음을 표현했다. 따라서, ③(가)에 비해 (나), (다)는 화자의 정서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출제의도] 내용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였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회화적 요소가 강하게 느껴지는 작품이다. 즉 비가 내리기 전의 모습, 비가 내리는 모습, 빗물이 땅에 떨어져 흘러가는 모습, 잠시 멎은 비가 다시 내리는 모습이 시간 흐름과 시선 이동에 따라 포착되어 그려지고 있다. ③(가)의 ‘3’, ‘4’연은 빗물이 땅에 떨어져 뿜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산새가 비를 피해 날갯짓을 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17.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화자는 한여름 대낮에 뒤턥에서 우는 매미 울음소리를 듣고 임의 말소리와 발소리, 그리고 대님 푸는 작은 소리를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③ ‘매미 울음’은 어떤 대상을 연상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8. [출제의도] 작품을 읽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고생하시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은 (다)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19. [출제의도] 표현방식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⑤ ‘공감각적 표현’이란 한 대상을 감각화하여 다른 감각으로 변용해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E]는 인정을 후각으로, 쿡서리를 하여 모닥불에 구워 먹던 추억을 시각으로 각각 감각화하여 드러냈다. [오답풀이] ② ‘땀땀’ 소리를 ‘명명(明明)’ 소리로 표현하여 음의 유사성과 한자가 가진 의미성을 동시에 드러내어 이미지의 참신성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다. ④ ‘누름’-시각, ‘고향 냄새’-후각, ‘개구리 울음 소리’-청각을 활용하고 있다.

[20~23] [과학] 이종호, ‘급격한 기후 변화 일어날 수 있다.’

20. [출제의도] 글에 담긴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대기 온도의 상승, 극지방의 얼음을 녹임, 바닷물의 염분 농도를 낮춤, 해수 순환 멈춤으로 이어져 결국 빙하기를 초래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과 다른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2문단을 참고할 때, 과거의 과학자들은 급격한 기후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5문단을 참고하면 빙하기라는 엄청난 재앙이 북반구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른 상황을 올바르게 비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위 글의 글쓴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의 내용은 극지방의 얼음이 녹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즉 실용적 측면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적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글의 문맥적 의미에 알맞은 단어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에너지를 내보냄’이라는 의미의 방출(放出)이 가장 적절하다.

[24~27] [언어] ‘형태소와 이형태’

24. [출제의도] 글을 이해한 학생의 반응을 묻는 문제이다.

③ 1, 2단락에서, 의미의 최소단위인 형태소를 이해하면, 형태소가 모여서 합성어와 파생어 같은 단어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발음 방법이나, ②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할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25.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이다.

형태소, 이형태의 용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고 있다.

26.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개념을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얇’과 ‘뭇’은 형태와 분포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형태소이며 이형태가 될 수 없다.

27.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예에서 ‘값’의 의미는 변화가 없지만,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에서 김○○ 씨는 변함이 없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는가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고 있다.

[28~32] [고전소설] 김시습, ‘만복사 저포기’

28. [출제의도] 작품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 속의 여인과 양생은 사랑을 절대시하는 유사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29. [출제의도] 작품을 다른 장르로 전환하는 문제이다.

여인이 양생에게 은 주발을 줄 때 진지하게 간청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30. [출제의도] 작품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하생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묶여서 끌려가 문초를 당하는 고초를 겪지만, 위 글의 양생은 특별한 고초를 겪지 않는다.

31.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한자어를 찾는

- 문제이다.
 ‘얼마쯤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함’을 의미하는 ㉠이 ㉡과 유사한 한자어이다.
32. [출제의도]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노래를 찾는 문제이다.
 ㉡에서 여인은 귀신의 몸으로 쓸쓸하게 지내다가 양생을 만나 각별한(부부의) 정을 맺은 상황이므로, 입을 만나 그동안 쌓인 한을 풀었다는 내용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 [33~37] [인문] 박척신, ‘심리학’
33. [출제의도]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간은 눈을 통해 들어온 자극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시켜 받아들인다. 이 체계화 작업은 무의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34. [출제의도] 각 단단의 글쓰기 전략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는 지각 조직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독자를 설득시키려고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속담은 ‘과거에 자라를 보고 몹시 놀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솔뚜쟁이를 보고도 마치 자라로 지각하여 놀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자라 보고 놀란 것’은 과거의 경험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용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서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 b, c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에 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이 있는 삼각형처럼 보이는 것은 완결성 때문이다.
37. [출제의도]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떤 사물로 지각되는 이유는 전경과 배경이 상호 작용하면서 그 경계가 뚜렷해져 전경과 배경이 분리되기 때문이다. ㉢처럼 전경과 배경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전경과 배경이 상호 작용하지 않아 그 경계가 분리되지 않는다.
- [38~41] [예술] 임석재, ‘건축에 담겨 있는 사회 의식’
3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였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건축에서 긴장감 넘치는 공간이 발견되는 경우, 그 이면에 사회적 동기가 깔려 있음을 설명한 글이다.
39.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에 적용하여 세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성 카를로 교회는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을 상승시키기 위해 하늘을 향해 치솟는 모습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사선을 이용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높아 보이게 하거나 하늘을 향해 치솟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읽은 독자의 반응을 묻는 문제이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건축물이라도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생활하는 데 편리하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41. [출제의도] 다의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상태나 분위기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이다,

[42~46] [현대소설]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42. [출제의도] 소설 속의 상황을 사회의 모습에 적용하여 유추하였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피지배자들이 처한 사회 현실 속에서의 일반적 성향일 수는 있으나, 이 글에서는 ‘나’를 포함한 억눌린 학생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43. [출제의도] 인물들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영래와 학급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영래의 지배에 수치심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용기를 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학급의 주도권 싸움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4. [출제의도]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게 니 깔치니?’, ‘구경했으면-’ 등으로 보아 ‘선생님’의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 ‘선생님을 욕보인-’ 등의 구절을 통해 볼 때, ‘선생님의 예쁜 모습’을 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45. [출제의도] 관용적인 표현을 문맥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두려움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46.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은 전체 작품으로 볼 때,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절정과 결말 부분이다. 이 긴박한 상황이 짧은 길이의 문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47~50] [사회] ‘소득 불평등’

47. [출제의도] 글의 개괄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정보만이 담겨있을 뿐 소득 불평등으로 인해 빈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전개 양상에 대한 내용은 없다.
48.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용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로렌츠 곡선으로 드러나는 면적을 바탕으로 지니 계수를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을 토대로 산출된다고 할 수 있다.
4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두 나라의 로렌츠 곡선이 서로 교차할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B와 C는 서로 대칭을 이루며 교차하므로 소득 불평등 정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50. [출제의도] 화제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파악하여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소득 재분배 정책은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은 근로 의욕을 저하할 수 있다.

[51~56] [수필·교전] (가)채수, ‘적가산폭포기’, (나)윤선도, ‘어부사시사’, (다)박순, ‘어부사’

5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올바르게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와 (다)는 본래 그대로의 자연만을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가)는 우리나라의 명산과 같은 본래 그대로의 자연과 더불어 작가가 만든 폭포와 같은 인공적 조형물 역시 소재로 다루고 있다.

52. [출제의도] 글 속의 세부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작가는 평소애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많아 다니기 힘들어졌으며, 산수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써보기도 했지만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B]에서 인공적 조형물을 만들어 즐거움을 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3. [출제의도] 작품 속 소재의 기능을 올바르게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물’은 속세와 떨어진 곳에 사는 시적 화자와 속세를 격리(隔離)하는 소재에 해당한다. (나)에서의 ‘파랑성(波浪聲)’ 역시 시적 화자가 속세의 시끄러움을 멀리할 수 있게 하는 소재이다.

54. [출제의도] 작품 속 시어 간의 관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산사람’과 ‘남녘 늪은이’가 대비를 이루며, ‘산사람’이 좋아하는 사냥과 ‘남녘 늪은이’가 좋아하는 낚시 역시 대비를 이룬다. 또한 현재 시적 화자가 낚은 물고기의 옥비늘과 예전에 서울에서 물고기를 샀을 때의 썩은 냄새 역시 대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5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이다.

(나)의 ‘秋·3’에는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대비한 부분이 없다. 자연을 대하는 시적 화자의 풍류적 태도가 드러날 뿐이다.

56. [출제의도] 소재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올바르게 파악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으로부터 작가는 조금의 위로는 받을지언정 진실에 가까운 생동감을 느낄 수 없어서 허전함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은 소재의 성격이 작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상인 ㉡, ㉢, ㉣, ㉤과 구별된다.

[57~60] [기술] ‘원격 존재’

5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원격 조작 시스템 운용의 성패는 정보가 가진 특성에 달려 있다.’고 했다.

58. [출제의도] 그림 자료를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격 도구는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조작자의 지시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는 옳지 않다.

59. [출제의도] 앞뒤 문맥을 통해 생략된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원격 존재란 조작자와 다른 곳에 존재하는 조작자 자신과 같은 가상의 존재이므로 ㉣가 가장 적절하다.

60. [출제의도]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감각적인 즐거움을 얻는 생활을 가리킨다. 그런데 ㉣는 기계가 자체 지능을 가지는 인공 지능 로봇의 모습이다.